

# ‘외지’로서의 식민지대만 인식과 대북고등학교 일본어잡지 『상풍(翔風)』 연구 — 일본인의 대만 표상을 중심으로 —

김 옥\*

(e-mail : silhakga@naver.com)

##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3. 잡지 『상풍』과 대만고등학교의 대만 인식       |
| 2. 내지연장주의와 대만 인식 전환의 필요성        | 3.1. 『상풍』 발간과 미사와 다다스(三沢紉)의 구상  |
| 2.1. 대만 식민통치 초기의 상황과 서열화 된 대만표상 | 3.2. ‘외지’ 대만의 풍경과 표류하는 ‘대만인’ 인식 |
| 2.2. ‘외지’ 개념의 형성과 교육 정책의 포섭     | 4. 나가기                          |

키워드 : 植民地台湾(Colonial Taiwan), 台北高等学校(Taihoku Higher School), 台湾表象(Taiwan Representation), 翔風(Shohu), 日本語雑誌(Japanese-language Magazine)

## 1. 들어가기

제국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日清戦争)에서 승리한 후, 시모노세키 조약(下関条約)을 통해 대만 섬을 일본의 속령으로 삼았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서양 열강의 정치 제도를 본 따 제국을 건설하는 데에 성공하였지만 그동안 식민지를 경영해 본 적은 없었다. 더구나 대만은 약 이 백여 년 동안 청(淸)나라에 예속되어 한족(漢族) 관리에 의해 경영되어 오면서 한족과 대만 원주민이 공존하던 곳으로, 일본에게는 미지의 땅이나 다름없었다. 때문에 할양 초기, 자립을 원하던 대만인 등에 의해 대만민주국(台湾民主国)이 선포되기도 하는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근현대 일본어문학

등, 5개월 동안 극심한 무력 충돌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일본의 대만 통치는 많은 시련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1910년에는 조선을 강제 합병하면서 더 많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 결과 주지하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대만의 서래암사건(西來庵事件)과 조선의 3.1운동 등이 일어나며 식민지 통치 방식에 대한 긴장이 지속되었다. 조선과 대만을 제국 일본의 식민지가 아닌 내지의 일부로 상정한 내지 연장주의(内地延長主義)<sup>1)</sup>도 이즈음 발현된 사상이다. 다만 조선과 대만을 내지 화하기 위해서는 법제의 통일과 문화적 일체감을 조성할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고,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그 동안의 식민지 통치 방식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대두된 것이 식민지 교육의 강화를 통한 내지 연장의 여건 향상이었으며, 일본어 교육의 강화 및 식민 통치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식민지에 고등교육을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 하에, 대만에서 1922년에 설립된 대북고등학교(台北高等學校)를 주목하고, 고등교육기관 설립 이전의 대만 인식과 이후의 대만 인식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일본어 문헌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당시 대만에서 학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미사와 다다스(三沢紉)의 사상과 대만 인식을 중심으로 제만일본인과 대만인의 대만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일본어 잡지 『상풍(翔風)』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식민지기 대북고등학교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쉬성카이(徐聖凱)<sup>2)</sup>의 논문들을 수 있는데, 당시 대북고등학교를 학제(學制)가 어떠하였는지를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교육 제도와 인물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다만 문학 영역에 대해 논한 부분은 경미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사실상 식민지기 대만문학 연구자로서 익히 알려진 가와하라 이사오(河原功)가 대북제대 문예 잡지에 대해 글을 기고한 것<sup>3)</sup>이나 『상풍』 영인본에 해제를 쓴 부분<sup>4)</sup>을 제외

1) 그동안 식민지로 취급했던 조선과 대만에서, 일본 ‘내지’에 준하는 법제를 시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본 본토와 동등한 여건을 조성하자는 사고방식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혹은 영토를 잃은 민족들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이를 경계함과 동시에,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을 억제하고 보다 원활한 식민통치를 이어나가기 위해 대두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2) 徐聖凱(2012), 『日治時期台北高等學校與菁莪養成』, Airiti Press.

3) 河原功(2013), 「台灣に生き続ける旧制高等學校」『東方』384号.

4) 河原功(2012), 『翔風:第1号-第26号:一九二六-一九四五』, 南天書局, pp.3-14

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고등교육이 들어서기 이전, 대만이 어떠한 표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등교육기관 설립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실제 잡지에 기고된 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고자 한다.

## 2. 내지연장주의와 대만 인식 전환의 필요성

### 2.1. 대만 식민통치 초기의 상황과 서열화 된 대만 표상

청나라 조정은 사실 17세기 후반 대만을 점령한 이래, 한족의 대만 이주 및 상업 활동을 관리, 감찰하는 형태로 소극적인 통치를 행해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일본의 군대가 사쓰마(薩摩)번을 중심으로 대만정벌을 꾀하였고, 마침내 대만 원주민의 일본인 살해 등을 빌미로 대만 섬에 상륙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나라는 외세 경계와 동시에 대만의 통치를 강화하게 되면서 대만의 근대화를 획책하게 된다. 이에 따라 1885년, 대만을 총괄하는 관리직으로 대만순무(台灣巡撫)를 설치하고 1887년에는 복건성(福建省)에 편입시켜 복건대만성이라 칭하며 대만의 관리를 황제의 직할 하에 두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야만인으로 취급해오던 대만 원주민을 ‘생번(生蕃)도 청의 거주민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일본의 대만 침략 야욕을 저지하려 하였다.<sup>5)</sup>

하지만 1895년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일본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할양받게 된다. 그런데 청나라의 고위관료를 위시한 한족(漢族)의 저항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민족적인 감정에서 발현된 저항이었지만, 점차 시기가 흐르면서 일본인과 대만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에 기인한 반발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일본이 대만인을 아직 근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야만인’으로 생각하고 취급하던 행태와 무관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본 당국은 식민지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 그나마 ‘문명인’이라고 생각했던 한족과 원주민의 취급을 나눌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때문에 머지않아 한족은 본도인(本島人), 원주민은 번인(蕃人)이라는 용어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만인이라는 정의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으며, 그저 대만에 거주하는 사람 안에서 ‘내지인(內地人, 일본인을 가리킴)’을 정점으로 하여 그 다음으로 ‘본도

5) 浅野和生(2010), 『台湾の歴史と日台関係』、早稲田出版, p.38

인’, 최하층에는 ‘번인’이라고 하는 계급질서가 생겼다.<sup>6)</sup> 이러한 대만 내에서의 상·하위구조 형성은 어느 정도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지엔중하오(簡中昊)는 나카지마 치쿠카(中島竹篙)의 『생번탐색기(生蕃探檢記)』에서 회상록의 형식을 빌려 대만원주민을 탐사하였고, 대만의 한족과 원주민의 관계에 주목하였으며 ‘번인’과 ‘지나인(支那人)’의 관계, 아이누와의 대비에는 근대일본의 ‘문명서열의 우열감과 통치자의 시선이 읽힌다<sup>7)</sup>고 보았다. 즉, 지나인과 번인의 관계를 일본인과 아이누인의 관계로 도식화하면서, 지나인이 나카지마 등의 일본인 앞에서 “같은 일본인이라고 칭해지는 영광”이라고 표현한 말을 소개하며 이중적인 상하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하구조는 대만 섬 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 제국 일본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대만인에게 ‘번인’이라는 표상은 줄곧 따라다니고 있었다. 크고 작은 항쟁이 초기 대만 통치기에 계속되는 동안 본도인을 본격적으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이 일본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가장 돋보이는 활동으로 대만동화회(台灣同化會) 운동을 들 수 있다. 도사(土佐)번의 무사였던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등이 그 중심이었는데, 대만인의 본국과 같은 정치활동 보장과 같은 주장을 펴 대만 본도인 지식인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특히 대만에서는 ‘계속하여 전문지식만을 받도록 하여 문명국민의 자격에 필요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만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인종의 구분을 철폐하고 같은 제국 신민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동화주의(同化主義)가 깔려있으며, 본도인을 지나인(支那人) 혹은 대만원주민을 토인(土人)으로 대하는 제국 일본의 대만 인식을 비판하는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타가키의 이러한 언설은 표면적으로는 대만인 한족과 원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을 포용하자는 인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온건한 식민통치를 통한 대만의 안정화와, 중국 접경지로서의 역할론 등에서 보이듯이 본도인 지식인을 활용한 대(對)중국 외교를 강화하자는 통치자적 사고가 발현된 결과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sup>8)</sup>

대만동화회 운동은 대만총독부의 압박으로 인해 강제 해산을 당하고 불과 1

6) 若林正丈(2001), 『台湾-変容し躊躇するアイデンティティ』, ちくま新書, p.16

7) 簡中昊(2015), 『近代日本の台湾原住民認識—作家たちが見た野蛮人』, 総合研究大学, p.44

8) 許世楷(1972), 『日本統治下の台湾』, 東京大学出版会, pp.168-170

년도 되지 않아 실패로 돌아갔지만 대만인 지식인에게 활력을 가져다주었고, 이는 동경의 대만인 유학생이 신민회(新民會)를 결성하여 『대만청년(台灣青年)』 등의 잡지 활동을 개시하는 등, 그들의 정치, 문화 활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움직임에는 먼저 ‘신민’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조선과 달리 대만은 원주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본도인마저도 한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1895년에 한족을 중심으로 한 ‘대만민주국’ 건립과 같은 일이 있었고, 일본의 강압적인 초기 식민 정책에 반발하여 무장 항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극렬한 민족주의자들은 다시 대륙으로 넘어가거나, ‘대만동화회’와 같은 온건적 정치활동으로 전향함으로써 ‘독립’의 문제보다는 ‘내지’인과 동등한 ‘권리’ 보장의 노선으로 다가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대만’ 출신이라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방기하지는 않았지만, 주민의 다수는 일본의 지배를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인은 하였다.

이와 같이 초기의 저항 이후, 대만인은 소극적이지만 식민지 지배를 받아들여, 제1차 세계대전 중반부터 전후까지, 한 때 정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식민지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대만 전체의 치안이 위협을 받은 적은 없었다. 다만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던 대만인의 정치 활동으로, 앞서 거론한 대만동화회(台灣同化會) 운동과 대만의회설치청원운동(台灣議會設置請願運動)과 같은 대만의회설치에 의한 자치 획득을 요구하는 운동이 있었지만 이 운동이 당국으로부터 아주 쉽게 저지되었던 것만을 보더라도, 일본의 지배에 대한 대만인의 수동적 반응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sup>9)</sup> 따라서 1919년, 문관통치로의 전환 이후 일본 당국의 가장 큰 과제는, 대만에 대한 기존의 식민지적 인식을 해체하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 대만인의 자발적 동화를 유도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대만인의 자기 인식은 물론, 재만일본인 및 ‘내지’인의 대만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하였기에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 2.2. ‘외지’ 개념의 형성과 교육 정책의 포섭

대만에서는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대만총독부 민정장관 등을 중심으로 한 영국 방식의 식민지정책이 장려되었다. 이는 문화교육과 인프라가 뒤떨어진 대

9) 마크·피어티어, 淺野豊美訳(2012), 『植民地~20世紀日本帝国50年の興亡』、p.276

만 섬을 내지(内地)와 동등하게 가져갈 수 없다는 의견에 근거한 것이었다. 대만총독을 역임한 가즈라 다로(桂太郎) 등이 이를 지지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지와는 구분되는 대만 내 정책을 확립하여 6.3법<sup>10)</sup>이 제정되었고, 이는 대만총독을 위시한 대만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대만의 한족과 원주민이 내지 이주민과 따로 교육을 받았으며, 역시 동화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당시 대만인들의 문화적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었기에 일본어는 행정과 기득권층에 의해 극히 일부분에게만 통용되었다.

반면에 하라 다카시(原敬)와 같은 이들은 “대만의 제도는 되도록 내지와 가깝게 하여 최대한 내지와 구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台湾の制度はなるべく内地に近からしめ遂に内地と区別なきに至らしむことを要す)”이라는 주장을 폈다.<sup>11)</sup> 이는 대만의 통치 방식 전환을 꾀하고 있었던 일본 당국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1918년에 내지연장주의(内地延長主義)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통치에 반영하기 위해 최초의 문관관료가 대만총독이 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 종언 후, 열강들의 식민지가 해체, 독립 수순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조선에서는 3.1운동과 같은 대규모 민중항쟁이 일어났다. 제국 일본은 더 이상 그동안 조선과 대만을 통치하던 방식을 일소하여 전 세계 언론의 비난의 화살에서 피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sup>12)</sup> 제국 일본이 양대 식민지에 문화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그 돌파구를 ‘내지와 동화(同化)’로 설정한 것은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와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었다. 유화정책을 펼치며 식민지내 독립 강경론자들을 포섭하려는 시도는 보다 주도면밀한 통치 방식을 요했다.

이때부터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로 규정하는 언설은 점차 아카데미한 상황에서만 사용되고 ‘내지’와 구별되는 제국 일본의 조선, 대만이라는 개념인 ‘외지’가 등장하게 된다. 1918년 4월 17일에 제정된 공통법(共通法) 제1조 1항에는 ‘본 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라 함은 내지, 조선, 대만, 관동주와 더불어 남양군도

10) 1896년 3월 30일에 공포된 ‘대만에서 시행될 법령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만총독에게 대만 섬 내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는 법령을 공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대만이 일본의 일부로 여겨지면서도 실제로는 ‘내지’와 다른 방식의 법제와 통치방식을 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11) 大江志乃夫編、若林正丈(2005)、『台湾議會設置請願運動』、『近代日本と植民地(6) -抵抗と屈從』、岩波書店 참조.

12) 이를테면 대만의 서래암사건이나 조선의 3.1독립운동이 서양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국 일본 식민지 통치 형태의 야만성이 서방 각국 언론의 도마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를 말함(本法ニ於テ地域ト称スルハ内地、朝鮮、台湾、關東州又ハ南洋群島ヲ謂フ)이라 쓰여 있다. 더불어 제1조 2항에는 ‘전항의 내지에는 가라후토를 포함한다(前項ノ内地ニハ樺太ヲ包含ス)’고 적시되어 있다. 그동안 관용적 용어로 사용되어 왔던 ‘내지’를 처음으로 적시한 공문서이며, 가라후토를 실질적인 본토로 인정하였다는 자료로 일본에 널리 알려진 문서이다. 제국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미치는 지역을 정의할 때, ‘내지’라는 구분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내지’ 이외의 영역인 조선, 대만, 관동주, 남양군도가 ‘외지’라는 개념으로 묶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이 ‘외지’라는 용어가 실질적으로 널리 쓰인 것은 1930년대 이후라 볼 수 있지만<sup>13)</sup>, 사실 1920년대부터 ‘외지’ 개념은 내지연장주의의 시선으로 조선과 대만을 바라볼 때 식민지 개념의 대타향으로서 기능하는 중요한 명제가 되었다.

이렇게 ‘외지’ 개념이 형성되고, 그 ‘외지’를 ‘내지’로 편입하는 단계적 과정으로써 대만에는 덴 겐지로(田健治郎)의 주도하에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그동안 내지와 다른 수준으로 운영되었던 ‘외지’의 국립(国立) 고등교육기관 설립이다. 식민지내 실력양성론을 달래고 ‘내지연장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로 엘리트 교육을 실시하는 ‘외지’ 고등교육기관을 건립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만에서는 1922년에 대북고등학교(台北高等学校)를, 조선에서는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京城帝国大学)과 예과(予科)를 각각 설립하기에 이른다. 일본인 학생과 식민지의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일본어로 강의를 받는 교육제도의 형태를 조선에서는 ‘내선공학(内鮮共学)’, 대만에서는 ‘일대공학(日台共学)’<sup>14)</sup>이라고 불렀다. 당연히 학내에서의 대부분의 활동도 일본어로 이루어졌고, 통치자 측 언설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더구나 1929년에는 일부 개정을 통해 내지인, 본도인(대만인) 구분이 완전히 철폐됨에 따라 내지인만 진학이 가능했던 소학교도 본도인이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구분되어 선택적 진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대만의 국어(일본어)상용정책은 조선보다 빠르게 궤

13) ‘외지’란 공식적으로는 일본의 주권 하에 놓인 이들 지역에 대해 1930년 무렵부터 사용된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그 이후 일본이 세력 하에 두었던 만주국, 1937년 8월 상하이사변 이후 군의 포위 하에 놓인 상하이, 대(對) 미국, 영국 전쟁에 돌입하기 전후부터 침공하여 군정 하에 두었던 남방 제지역 등도 포함하여 사용되었다. -가미야 다다타카, 정병호 외 5인 역(2010), 『<식민지> 일본어 문학론』, 도서출판 문, p.26

14)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조선과 달리, 중등교육에서도 ‘일대공학’을 허용했다.

도에 올랐다.<sup>15)</sup>

거시적 의미에서의 고등교육기관은 사범학교<sup>16)</sup>와 전문학교<sup>17)</sup>를 포함하나, 당시 제국 일본에서 엘리트 지식인이라고 여겨졌던 이들은 대부분 관립(官立) 고등학교, 제국대학 출신이었기 때문에 흔히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이를 지칭한다. 제국대학은 후기 고등교육기관이자 전공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었는 데, 전기 고등교육기관이며 교양 교육(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던 구제 고등학교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였다. 구제 고등학교(旧制高等学校)<sup>18)</sup> 총 입학 정원과 제국대학 총 입학 정원은 항상 비슷했기 때문에, 구제 고등학교 졸업생은 대학, 학부를 묻지 않는다면 제국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국대학 입시는 현재의 에스컬레이터식 고등학교에 진학해 대학 학부로 선발되는 위치에 있었으며, 고등교육 입시의 주 전장은 구제고교 입시였다. 구제 고등학교 선발의 엄격함과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지적 특권성은, 제국대학 졸업생의 많은 이들이 출신제국대학보다 출신구제고교에 정체성을 두는 이유였다. 구제 고등학생은 구제 중학생의 동경의 대상이었으며, 역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구제 고등학교와 제국대학은 서로 공명하며 매력을 뿜냈다.<sup>19)</sup> 대만에 고등학교가 세워지자 대만 지식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대북고등학교 설립이 대만 지식인을 양성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았다.

### 3. 잡지 『상풍』과 대만고등학교의 대만 인식

#### 3.1. 『상풍』 발간과 미사와 다다스(三沢紉)의 구상

대북고등학교의 초기 기틀을 잡은 것으로 유명한 미사와 다다스(三沢紉)는 오사카부립제11중학교(大阪府立第十一中学校) 초대 교장을 역임하여 ‘자유와 창조’의 정신을 언급하고 여성 교사 세 명을 처음으로 채용하는 등, 다이쇼 데

15) 周婉窈, 濱島敦俊訳(2013), 『図説台湾の歴史』、平凡社,p.146

16) 식민지기 동안 조선에 경성사범학교(京城師範學校, 1922년 설립)를 포함 22개교가 존재하였다.

17) 역시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18) 당시 관립 고등학교를 칭하는 현재 용어.

19)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竹内洋(1999), 『学歴貴族の栄光と挫折』、中央公論新社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모크라시의 기풍을 교육계에 적용한 인사로 유명하다. 동경제대 졸업 후, 문부성 장학생에 선발되어 미국 유학을 떠나 실험교육학(實驗教育學) 등을 전공한 그는, 미국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저서를 남겨 일본의 교육학에 큰 기여를 하였다. 『국민성과 교육방침(國民性と教育方針)』, 『시대와 교육(時代と教育)』 등이 특히 유명한데, 특히 유학 중의 투고 논문을 바탕으로 한 『시대와 교육』은 그의 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된다. 이에 의하면 미사와는 서구의 교육이념이 일본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교육에 대한 그 문화에 맞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더불어 국민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중등교육이며,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는 ‘일본 정신에 부합하는 귀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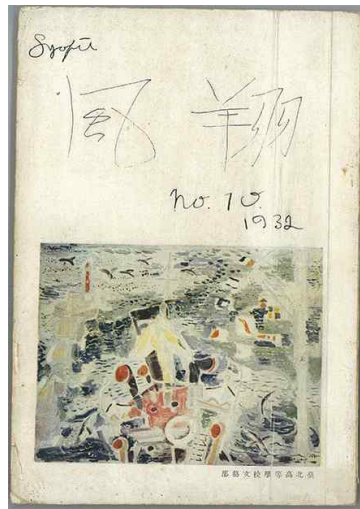
그런 그가 1925년 5월, 대북고등학교에 부임하면서 신교사(新校舎)를 세워 입학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며, 이는 대만이 건너오기 전에 그가 대만의 정황에 대해 다소 지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재임 중 입학시험, 과제 시간, 성적의 평가방법 등을 개혁하였고, 학생들에게 되도록 동경제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고 한다.<sup>20)</sup>

그가 부임한 이래 발간된 최초의 일본어 잡지 『상풍』은 대북고등학교에서 1926년 3월에 창간하여, 1945년 7월까지 전 26호가 간행된 학내 종합잡지이다. 그러나 창간호는 배포되지 못했으며, 발행 후에 전권 회수되었다. 미사와 교장이 창간호의 내용이 「반악하며, 별 볼일 없어서 타교와의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미사와 다다스 교장이 「전부 보류해라」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의 엘리트 지향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와하라는 『상풍』이 다른 학교의 잡지와는 다른 특징이 두 가지 있었다고 언급한다. 하나는 대북고교가 일본인 생도뿐만이 아닌 대만인 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상풍』에는 양자의 작품이 실렸다는 점, 다른 하나는 눈길을 끄는 아름다운 표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양한 색채로, 그것도 대만을 대표하는 화가인 시오쓰키 도호(塩月桃甫)<sup>21)</sup>가 그린 그림은 타교의 회지에는 없는 것이었다<sup>22)</sup>고 한다.

20) 徐聖凱(2012), 『日治時期台北高等學校與菁英養成』, Airiti Press, pp.80-92

21) 시오쓰키 도호(塩月桃甫, 1886-1954)는 다이쇼-쇼와시대의 서양화가이다. 에히메사범학교(愛媛師範), 대북고등학교(台高)에서 교단에 섰다. 대만에서는 총독부 미술관 창설에 기여했고 전후에는 미야자키시(宮崎市)에서 미야자키현 미술전의 심사원을 맡았다.

22) 河原功(2013), 「台灣に生き続ける旧制高等学校」 『東方』 384号, p.9



<그림1> 『상풍』 제10호 표지

이런 그가 『상풍』에 남긴 글은 총 두 편인데, 하나는 3호(1927)에 실린 「산장만언<sup>23)</sup>(山莊漫語)」이라는 수필이며, 다른 하나는 7호(1929)에 실린 「고개를 넘으며 드는 고민(坂を下るなやみ)」이라는 제목의 단카(短歌)이다. 「산장만언」을 보면 미사와가 타이베이(台北)의 베이터우(北投) 치성산(七星山)에 있는 산장에서 대만의 자연풍경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다. 식민지기 이전부터 대만의 명소로 알려진 이곳을 보고 그는 “태고의 한적함에서 태풍의 광란을 견디며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크게 변하지 않는 천자만상, 그 모든 것이 현묘하다(太古の閑寂より嵐の狂乱へ、たえて動かざるものの大に變ずる千姿万相、いづれか妙にして玄ならぬ)”고 하며, “신베이터우역 서쪽에서 약 백 보정도 떨어진 곳, 초산-지금의 양명산(陽明山)으로 통하는 새로운 도로가 상사수 숲을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지금은 서리를 두르고 있는 색색의 단풍나무 한 그루가 있다(新北投駅の西に面して、約百歩の処、草山への新道が相思樹の森を右に迂曲せんさするあたり、今や籍に飽いて色よき一本の楓樹がある)”며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근대적인 풍경을 정취 있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대만 산양도, 동물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엿보는 것도 각별한 재미가 있다고 생각되나, 거대한 돌무더기에 둘러싸인 산자락에서, 목동의 남루한 신발 끝을 종종 따라다니며, 메에 메에 울며 풀을 뜯는 것도 하나의 즐기는 방법이지 않을까(台灣山羊なんかも、もし彼

23) 한국어의 만언(漫言)과 같은 의미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는 말을 뜻함.

それを動物園の檻の中に覗き込んで見たとしたら格別の妙あとも思はれぬが、巨きな石の磊々としてゐる小山の腹を、素裸足に襤褸を著た牧童の靴先にチョコチョコしながら、ミヨウミヨウと草食みつつ打むれて行く(趣たるや、また一種ではないか)라는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베이더우는 온천과 별장이 유명한 휴양지로서 당대 대만 제일의 명소였다. 특히 러일전쟁이 끝난 이후에 일본군 상이병사들이 이곳으로 요양을 오면서 육군병원이 세워지고 새로운 철도가 깔리며 역이 생기는 등<sup>24)</sup>, 근대화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더불어 1914년에 개장한 타이페이 동물원은 그 당시에 제국 일본에서 가장 큰 동물원 중 하나로 유명했다. 미사와가 묘사하는 베이더우는, 이전처럼 막연히 자연만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의 유산들이 어우러져 있는 제국 일본의 휴양지로 거듭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sup>25)</sup> 미사와가 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북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그를 굉장히 따랐고 이는 회고록이나 당대 기록물 등에 소상히 나와 있다. 대만 쪽에서도 이와 같은 근거를 통해 미사와가 대만에서 세운 업적을 치켜올리는 문헌이 많은데, 전술했던 이유와 함께 생각해 보면 미사와가 그린 대북고등학교에서의 자유로운 학풍이란 온전히 제국 일본의 학생을 주체로 한 사상이었다. 물론 그 당시의 대만인 또한 일본인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또 모르겠지만,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인이 된 대만인의 학생이 그 당시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를 따져 보면 거의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종합잡지인 『상풍』에서조차 대만인 학생의 글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게재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다. 어쩌면 1920년대 후반 대북고등학교의 모습이야말로, 일본 ‘내지’의 연장으로서 식민지를 취급하였을 때 식민지의 국토나 자원이 아닌,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 온 식민지인이 어떻게 감추어지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표본이지 않을까.

이후 그가 대만을 떠나기 전 남긴 단카 「고개를 넘으며 드는 고민」 같은 경우를 살펴 보면, 그가 4년 동안 학내에 자유정신을 전파하고 학생들의 많은 반발을 불러왔던 생도감(生徒監) 제도를 폐지하며 노력하던 시절에 대한 여운이 담겨 있다. 마지막 줄의 ‘젊은 날의 불꽃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이렇게 늙을 줄은 내 생각치도 못하였는데(若き日の焔のかげはゆらぐなりかくて老いむとわれ思ひきや)’<sup>26)</sup>가 암시하는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지만 온전히 싸워 이길 힘을 갖

24) 片倉佳史(2015), 『台湾日本統治期の50年』, 祥伝社, p.65

25) 台湾總督府高等学校校友会(1927), 『翔風』 第3号, pp.89-92

26) 台湾總督府高等学校校友会(1928), 『翔風』 第7号, p.55

추지는 못하고 방황하는 자신의 어리석음(さまよへる心なりけり)空虚けしわれは)을 묘사하며 겸허한 어조로 자화상을 노래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사와는 대북고등학교에 취입하기 전에 나름의 구상을 가지고 대만에 들어왔다. 실제 일본의 사정에 맞는 고등교육과, 일본정신에 맞는 엘리트 양성이 그것이다. 한편으로는 미국 유학의 경험을 살려 자유로운 학풍을 대북고교에 주입하려 했고, 그가 미국에서 들여온 ‘자유 의 종(自由の鐘)’은 지금도 후신인 대만사범대학에 걸려 있다.<sup>27)</sup> 즉, 그가 식민지 대만의 대북고등학교에 주입하려고 했던 자유정신은 어디까지나 ‘일본적인 것’에 근거한 무엇일 수밖에 없었기에, 식민지 대만의 모습은 사실상 감춰질 수밖에 없었다. 현재 대만이나 일본에서 익히 알려져 있는 미사와 다다스의 ‘자유주의 교육방침’<sup>28)</sup>은 사실상 다년 간 다져온 그의 강고한 일본 중심의 사상에 의해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 3.2. ‘외지’ 대만의 풍경과 표류하는 ‘대만인’ 인식

창간호의 수준이 ‘타교와의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폐기를 지시한 미사와의 일화를 보면 알 수 있듯, 『상풍』에 실리는 글은 나름 엄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제9호(1931)에서 린빙야오(林炳耀)가 「세기를 춤추는 소녀(世紀に踊る少女)」라는 글을 기고하기 전까지, 약 5년간 대만인의 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록 제만일본인보다 극히 적은 수의 대만인만이 입학하였을지라도, 1922년에 개교한 7년제 고등학교에서 대만인의 글이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이런 연유로 잡지 발간 초기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일본인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 소수의 학생들이 ‘대만’에 관한 글을 남기고 있다. 특히 후에 박물학자이자 탐험가로 유명해진 가노 다다오(鹿野忠雄)<sup>29)</sup>의 글을 들 수 있는데, 가령 제5호(1928)에 실린 「번인의 악기 로보(蕃人口ボ)」<sup>30)</sup>가 있다. 대만번족(台灣蕃族)의 악기를 도면까지 그려가며 상세하게 설명한 훌륭한 글이다. 부족의 문화와 악기의 특징을 상술한 후, 그 말미에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27) 徐聖凱(2012), 『日治時期台北高等學校與菁莪養成』, Airiti Press, p.98.

28) 陳中寧(2013), 『台北高校物語』, 前衛, p.3

29) 일본의 박물학자, 곤충학자로 주로 대만 및 남양군도의 곤충에 대해 문화인류학 관점에서 많은 연구를 남겼다.

30) 台灣總督府高等學校校友會(1928), 『翔風』第5号, pp.99-109.

어쨌든 간에 우리는 대만의 번족이, 이 섬세한 악기를 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낭만적인 감성에 감탄하는 자이다. 음악에 대한 문외한인 나로서 말하자면, 음악을 담는 내용으로써 더욱이 문학적 의의를 새로 더해낸다면, 음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는 있어도 결코 그것을 알잡아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何はともあれ、我々は台湾の蕃族が、比の繊細な楽器を以て、意志表示にまで引き上げた能力と、ロマンチックな性情を讃へる者である。音楽に対する門外漢なる僕をして云はしむれば、音楽を盛る内容として、更に文学的意義を新に加へたならば、音楽の価値を増すことありとも、決して其の価値を低める事はあるまいと思はれる。

(중략)

여기에 있어 우리는, 그들의 불가사의한 표현력과 민감한 감수성에 대해 경탄하게 되는 것이다.

此処に於て、我々は、彼等の不可思議な表現力と、敏感な感受性に対して驚嘆するのである。<sup>31)</sup>

이 글에서 가노는 대만번인 악기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불가사의한 표현력과 민감한 감수성’이라는 구절은 언뜻 보기에는 칭찬하는 것으로 들리지만, 여기에는 ‘그들’이라는 ‘우리’와 다른 타자화 과정과 ‘불가사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선망이 드러난다. 타자화를 통해 나타난 엑조티즘과 낭만주의가 결합된 이러한 평가는 대만원주민도 제국 일본의 신민으로 존재하고 있는 ‘외지’ 대만의 정의와 분명하게 떨어져 있다. 식민지 초기의 서열화 된 대만 표상에서 가장 아래에 존재했던 번인의 표상이 정복자의 시선에서 타자의 시선으로 옮겨갔을 뿐, 비슷한 양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가사의’함은 역시 가노가 쓴 제7호(1929)의 「대만번인의 활에 대해(台湾蕃人の弓に就て)」<sup>32)</sup>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노의 글이 대만원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이국적인 대만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면, 제9호(1931)에 실린 요시 소이치(良鯨一)의 「폐허가 된 항구(廢れた港)」에는 원주민과 본도인의 두 가지 모습이 모두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무대가 되는 곳은 ‘성벽의 위쪽에는 유니언 잭이 이 항구의 유일한 생물처럼 펄럭거리고 있었다(城壁の頂辺にはユニオン・チャックがこの港の只一つの生物のやうにはたはたとつた)’라는 서술로 미루어보아 단수이(淡水)의 홍마오청(紅毛城)<sup>33)</sup>으로, 예전부터 대만원주민이 거주하였던 곳이다. ‘언덕에서 내려다보이

31) 台湾總督府高等学校学友会(1928), 『翔風』第5号, p.109

32) 台湾總督府高等学校学友会(1929), 『翔風』第7号, pp.38-40

는, 빨간 적목세공으로 된 토인가옥의 거리(丘からふりかへると、赤い積木細工にかさなりあつてゐる土人家屋の街)’는 바로 대만원주민의 마을을 가리킨다. 화자는 근처의 거주하고 있는 지인, 미사코를 만나기 위해 여학교를 방문했는데, 현관에서 ‘대만인 소녀’를 발견한다. 여기서 그녀에게 미사코를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유려한 내지어를 남기고 대만인 소녀는 떠나갔다(流暢な内地語を残して台湾人の少女は出て行つた)’고 서술된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 대만원주민은 ‘토인(土人)’으로 불리고, ‘내지어’를 사용할 수 있는 대만 여성은 ‘대만인 소녀(台湾人の少女)’로 명명된다. 이와 같은 표상의 상하구조는 이전에 보였던 ‘민족’ 개념이 구분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바로 ‘유려한 내지어’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여학생이 본도인이든 원주민이든 간에, ‘유려한 내지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대만인이라는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sup>34)</sup>

재만일본인이 『상풍』의 지면을 독식하는 기간 동안, 대만을 제재로 한 글은 극소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대만인’이 등장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거나 대만의 고등교육기관을 다닐 수 있었던 대만인은 매우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유력자 및 문예계와 사회사상가로 활동했던 대만인은 한족 출신의 본도인이었던 사실로 미루어볼 때, 대만원주민이 타자화 되는 것은 사실 식민지 치하 30여 년이 지난 당시까지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본도인이 ‘일본인’으로 호칭되는 것은 물론, ‘대만인’이라는 호칭을 획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로 ‘외지’라는 개념이 얼마나 불명확하게 자리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도인과 대만원주민의 위치가 대만의 고등교육기관에서조차 불명확하다는 사실은 대만을 식민지가 아닌 ‘외지’로 거듭나도록 하려는 시도인 ‘일대공학’이라는 교육기관 건립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일본인이 대만에 대한 주된 관심은 일본에 의해 근대화된 ‘대만’ 혹은 ‘일본과는 다른 이국적 정서로서의 ‘대만’ 아니면 ‘일본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만’이었다. ‘대만적인 것’의 정의조차 애매한 상황 속에서, 대만의 전근대적인 고유한 문화는 대만원주민(蕃人)의 것으로, 한시(漢詩)와 같은 고전 문학은 중국(支那)의 것으로 전유되고, 남은 것은 1895년 이후 많은 동화가 진행된 대만

33) 홍마오청은 1867년부터 영국대사관이 이양을 받아 사용하였다가,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후에 일본군이 접수하였다.

34) 台湾總督府高等学校校友会(1931), 『翔風』第9号, pp.90-96

의 풍경이나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대만인’ 뿐이었다. 따라서 실제 대만 민중의 삶이나 대만인의 문화는 그들의 언설 속에서 은폐될 수밖에 없었으며, 『상풍』이 일본어를 전용하는 잡지라는 점과 엄격한 게재 기준이 존재했다는 두 가지 지점에서, 본도인이 대다수였던 대만인의 문예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였던 것이다. 제11호(1932)에 이르러, 후에 대만문학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황더시(黃得時)가 등장하여 실제 대만 민중의 애환을 읊은 중문시(中文詩) 「상사수(相思樹)」를 창작하기까지, 대만인의 정체성 확립은 식민지기 아래서 길고 긴 태동기를 거쳐야만 하였다.

## 4. 나가기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대만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대북고등학교를 전후하여 대만 표상과 제국 일본의 대만 인식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초기 대만 통치 과도기에서 제국 일본 당국은, 전근대적 문명인으로 표상되었던 대만인을 본도인과 번인으로 분리시켜, 한족 출신의 본도인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였지만, 대만동화회 등의 대만 인식의 개선과 주권 신장 운동이 총독부의 식민통치방식과 배치되며 문제점을 드러냈다. 당국은 보다 원활한 식민통치를 위해 ‘내지연장주의’에 의거해 고등교육기관을 신설하는 등, 대만이 제국의 ‘외지’로서 자리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등장한 대북고등학교의 일본어 잡지 『상풍』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대만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교장 미사와 다다스의 자유주의 교육방침에도 불구하고 발전된 ‘외지’ 대만 표상 속에 대만인의 존재가 은폐되는 한계가 있었고 일본인 학생인 가노 다다오나 요시 소이치의 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의 대타항 개념으로 ‘외지’ 개념이 등장하면서 대만에 고등학교가 설립되고 유학을 통한 ‘내지’ 진출이 장려되었다는 점은, 결코 대만의 근대역사에서 대북고등학교 설립 의의를 저평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대만의 일본유학생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대만은 우리들의 대만이다’라는 인식이 싹틀 무렵에, 대만 총독부의 통제를 받는 대북고등학교에서는 대만 표상의 상하구조가 민족의 문제에서 교양의 문제로 넘어갔을 뿐,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1920년대의 대만인 학생이 문예활동 참여에 주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대북고등학교 내에서의 대만 인식에 대한 초기 언설을 이전의 대만 인식과 비교해 다루어보았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지 못했던 1930년대 이후의 대만인 학생이 참여한 글과 동시대 일본인 학생의 언설을 금후의 과제로 삼으려 한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 台湾總督府高等学校学友会(1927), 『翔風』 第3号, pp.89-92  
台湾總督府高等学校学友会(1928), 『翔風』 第5号, pp.99-109  
台湾總督府高等学校学友会(1928), 『翔風』 第7号, p.55  
台湾總督府高等学校学友会(1931), 『翔風』 第9号, pp.90-96

### 2차 자료

- 가미야 다다타카, 정병호 외 5인 역(2010), 『<식민지> 일본어 문학론』, 도서출판 문, p.26  
浅野和生(2010), 『台湾の歴史と日台関係』, 早稲田出版, p.38.  
大江志乃夫編、若林正丈(2005), 「台湾議會設置請願運動」、『近代日本と植民地 <6> -抵抗と屈從』、岩波書店.  
片倉佳史(2015), 『台湾日本統治期の50年』, 祥伝社, p.65  
河原功(2012), 『翔風:第1号-第26号:一九二六-一九四五』, 南天書局, pp.3-14  
\_\_\_\_\_(2013), 「台湾に生き続ける旧制高等学校」 『東方』 384号, p.9  
竹内洋(1999), 『学歴貴族の栄光と挫折』, 中央公論新社, p.2-432  
若林正丈(2001), 「台湾-変容し躊躇するアイデンティティ」, ちくま新書, p.16  
マーク・ピーター, 浅野豊美訳(2012), 『植民地~20世紀日本帝国50年の興亡』, p.276  
許世楷(1972), 『日本統治下の台湾』, 東京大学出版会, pp.168-170  
徐聖凱(2012), 『日治時期台北高等学校与菁英養成』, Airiti Press, pp.80-92  
周婉窈, 濱島敦俊訳(2013), 「図説台湾の歴史」, 平凡社, p.146  
陳中寧(2013), 『台北高校物語』, 前衛, p.3  
簡中昊(2015), 『近代日本の台湾原住民認識-作家たちが見た野蛮人』, 総合研究大学, p.44

논문 투고 일자 : 2018. 06. 24.

논문 심사 일자 : 2018. 07.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8. 03.

<要旨>

<外地>としての植民地台湾認識と台北高等学校の日本語雑誌『翔風』研究  
－日本人の台湾表象を中心に－

金 旭

本稿は、台湾最初の高等教育機関である台北高等学校設立を前後として、台湾の表象と帝国日本の台湾認識がどのように展開されたのかを探る研究である。初期台湾統治に於いて当局は、前近代的文明人と表象された台湾人を、本土人と蕃人に二分し、漢族出身の本土人を積極的に抱き込もうとしたが、台湾同化会等の台湾認識改善と台湾人の主権を求める運動が植民地統治方式と背馳され、問題が表れた。これによって当局は、より円満な植民地統治のため、<内地延長主義>に基づき高等教育機関を新設するなど、台湾が帝国日本の<外地>と成り立つように努力を尽くした。したがって、この時期に登場した台北高等学校の日本語雑誌『翔風』のテキスト分析を通して、台湾に対する認識の変化を調べた。その結果、校長である三沢糾の自由主義的教育方針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発展した<外地>台湾の姿のなかに、台湾人の存在が隠蔽されている限界があり、鹿野忠雄や良鯨一の文のなかにその問題が浮彫りになった。

A study on Recognition of Colonial Taiwan a dependant territory and the japanese magazine *Shohu* by Taihoku Higher School  
－focusing on Taiwan Representation by Japanese－

Kim, Wook

This paper examines how representation of Taiwan by Japanese Empire unfolded in and around Taihoku Higher School, the first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in Taiwan.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Colonial Taiwa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Taiwan made efforts to change representation of the Taiwanese as a pre-modern civilization by dividing them into two groups - the Main Island people (Han Chinese) and the Aboriginal people (natives) - in order to embrace Han Chinese Main Island people. However, as the Taiwan Assimilation Association asserted Taiwanese rights and started campaigns for improved recognition of Taiwan, which the Government General could not accept, these efforts proved to be problematic as a colonial policy. For that reason, the authorities made efforts to make Taiwan a dependant territory of Japanese Empire such as establishing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based on the 'mainland extensionalism', for more effective colonial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hanges in recognition of Colonial Taiwan through text analysis of the Japanese language magazine *Shohu* of Taihoku Higher School. As a result, despite advocacy of Liberalist educational policies of Tadasu Misawa, the Principal, there were limitations, with the existence of Taiwanese people being hidden in Taiwan's evolving appearance, which was clearly revealed through literary works of Tadao Kano and Soichi Yoshi.